

어린이 책꽂이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개마고원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희귀한 동식물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생태교양서, 동식물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개마고원의 지리적 특성과 사람들의 생활 및 역사를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보물=영국에서 전해오는 옛 이야기를 유리 슬레비치가 자신만의 독특한 문장과 그림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너무도 가난한 노인 이삭이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상황을 영화화한 한컷 한컷을 보는 듯한 절제된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풀어냈다.



〈시공주니어·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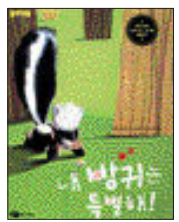
▲HOW-세상을 바꾼 100가지 공학기술(제1권)=한국공학한림원의 학자들이 선정한 100가지 공학기술을 알기 쉽게 만화로 엮었다.



주인공 '오리'는 집과 학교, 신문, 뉴스에서 찾아낸 사소한 물건과 기술이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놀라운 발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겨레아이들·9천500원〉

▲내 방귀는 특별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평범한 진리를 유머러스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림책. 특별한 동물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평범한 스텝크



야코부스는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원〉

▲생각의 꼬리를 무는 과학 234=물리·화학·생물·우주·인체에 관한 호기심이 234가지 질문과 친절한 설명으로 재미있게 이어진다. 한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다보면 또



다시 생기는 궁금증, 그 답을 얻으면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어 한번 책을 펼치면 좀처럼 책장을 덮기가 어렵다.

〈씹크하우스·9천500원〉

찬란하고 숭고한 이집트 문명 엿보기

...이집트 여행 크리스티앙 자크 지음

세계적으로 1천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탐세스'의 작가 크리스티앙 자크는 소설가이기 전에 40여년 동안 이집트를 연구해온 이집트학 학자다. '탐세스'를 포함해 '빛의 돌', '태양의 여왕' 등 이집트 관련 저서만도 40권이 넘는다. 그런 저자와 함께 이집트를 여행한다면 알차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티앙 자크와 함께 하는 이집트 여행'은 이집트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 초보자들에게도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의 방대한 연구자료를 총동원해 이집트 문명이 남긴 유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안내한다. 이집트 문명의 영혼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여행을 위해 나일강 하류인 이집트 북쪽 델타지역에서 나일강 상류 아부심벨로 거슬러 오르는 여정을 선택했다. 여행의 시작지가 될 수도 카이로에서는 카이로 박물관에 들려 "현관 입구의 작품을 시작해 1층 방들을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면서 감상하고, 2층에선 투탕카멘 등을 본 뒤 중앙 홀을 가로질러 내려올 것"을 제안하는 친절함도 잊지 않는다.

파라오 문명의 다양한 면모가 재현된 박물관에서 여행의 위명업을 하라는

카이로 박물관·피라미드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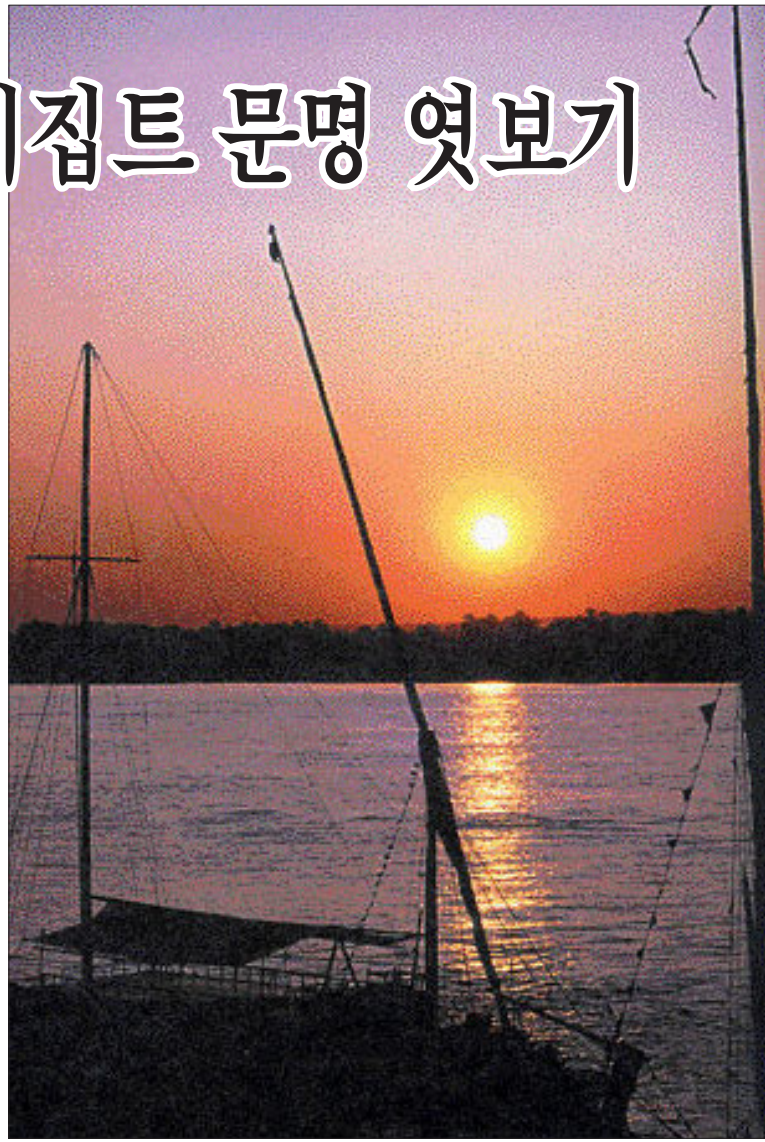
장엄한 유적 사진·지도 등 곁들여

것이다.

스핑크스와 세 기(基)의 대형 피라미드로 유명한 기자 지역에서는 피라미드의 발치에서 명상에 잠기고, 정상을 바라본 뒤 평원을 가로질러 사막의 일몰을 음미하라고 제안한다. 저자는 "기자를 백 번째 방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이로움에 젖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쓴다.

탐세스 2세의 신전이 있는 아비도스를 지나 테베에 닿으면서 저자는 또 말이 많아진다. 신전 중의 신전으로 꼽히는 카르나크 신전, 룩소르 박물관, 세티 1세 신전, 멍논의 대형 조각상, 탐세스 3세의 도시신전인 메디네트 하부... 특히 테베의 지하 분묘에서는 저자의 설명이 돋보인다. 무덤 속 벽화들의 생생한 세부묘사 만큼이나 자세하게 재미있는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해준다.

저자는 또 나일강 상류의 아스완 지역에 주목한다. 거대한 댐 건설로 인해 수



저자는 나일강의 일몰을 보면 이집트 여행이 왜 영혼을 향한 여행인지 알게 된다고 말한다.

물릴 뻔한 신전과 유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과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원래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탐세스 2세의 '대신전'과 네페르타리의 '작은 신전'은 그 규모와 예술성 만으로도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하다.

중요한 유적이거나 지역들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단면도와 지도를 곁들인 점은 책 뒷면에 실린 '이집트 연표', '이집트의 신들', '용어 해설' 등과 함께 저자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일강의 일몰을 보며 저자는 깨닫는다. "어째서 이집트가 신들의 사랑을 받은 땅이었으며, 어째서 이집트 여행이 영원을 향한 여행인지..."

〈문학세계사·1만6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국이란 스펙트럼 통해 살펴 본 20C 문화

20세기 문화 지형도 코드 최 지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뉴욕대 부교수를 지낸 저자 코드 최는 '20세기 문화 지형도'에서 지난 100여년간의 시간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되돌아 본다.

저자는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등 유럽에서 탄생한 사조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 새로운 얼굴로 탄생했으며, 다시 아시아 등 제3세계와 유럽으로 역수출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모더니즘 등 20세기의 주요 문화현상을 '미국'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살펴본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직접 목격하고, 그 속에서 예술가이자 문화이론가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자의 이력으로 인해 그의 제언은 적잖은 울림을 남긴다.

〈안그라픽스·1만3천원〉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술 권력기

술 통 장승욱 지음

'술' 대한 추억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산문집 '술통'을 펴낸 전직 언론인 장승욱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이다.

인기 잡지 '페이퍼'에 연재중인 '취생록(醉生錄)'을 묶어 펴낸 '술통'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마흔 여섯 사내의 웃기고도 슬픈 술권력기다.

농구나 축구 경기를 보며 술을 시도할 때마다 한잔씩 마시는 일명 '숯판' 등 50여개 이르는 '실화'는 '지어낸 글' 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어 50편의 풍토를 보는 느낌이다.

책을 읽다보면 박장대소 하지 않을 수 없고 순간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때론 눈물도 찼길다. 특히 독특하고 유쾌한 문체는 즐거움을 더해주며 우리말 관련 책을 펴낸 바 있는 그의 맛깔스런 단어 선택도 눈여겨 볼 만하다.

〈박영출판사·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인생 한편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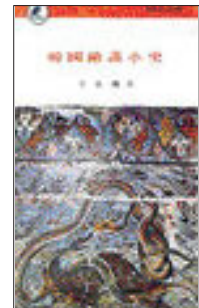
이동주 '한국회화사'

우리는 저마다 문학소년 시절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내 백일장에서 최종 후보 몇에 들었다가 뿔하지 못한 아쉬움은 40년이 넘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된다. 그때 당당하게 수상한 친구를 수 십 년 만에 광주에서 만났다. 그에게 당시 글 제목과 친구 글 내용을 이야기하니 놀랄 밖에.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가슴 예민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가 보다. 1960년대라는 시대 분위기가 갖다 있었으나 종교시절 문예반 활동을 하며 밤새워 한국문학전집 36권 등 독서에 푹 빠진 기억도 새롭다.

세계문학전집의 독과, 그리고 대학 휴교가 잦은 70년대 초 여러 출판사에서 한참 번역 붐이 일던 시절은 대학생의 입을 거리로 중요 메뉴가 되었다. 문학과 더불어 각종 에세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법학자인 중국의 오경용이 유불선 등 동양의 전통사상으로 기독교를 풀이한 '내심낙원'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내가 있게 한 내 길과 일에 지점으로, 해서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펼치는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은 다른 아닌 '한국회화사'이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 미술사(美術史)란 학문을,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회화사를 실제 작품을 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 길로 접어들어 만 30년이 되는 날을 올 봄 예상 광주에서 맞아 잠시 혼자서 남모름

'옛 그림의 흐름' 생생히...



감회에 젖기도 했다. 현재의 내가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책을 헤아리니 '한국회화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1972년 서문문고 001로 나온 '한국회화사'는 우리나라 옛 그림의 대세와 그 흐름의 맥을 잡은 최초의 개설서이다. 몇 차례 다시 찍었으나 곧 품절돼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는 10년을 기다려야했다. 외국에서 책을 보내 달라는 친구가 있어 70년대 청계천 고서점에 들러 발견되는 것마다 구입한 기억도 새롭다.

나는 이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다. 이 책도 출판사를 달리 해 도판을 원색으로 크게 게재한 대형 책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이동주(1917~1997) 선생은 본명이 이용희로 우리나라 정치학계의 원로 교수이며 통일원장관을 역임한 분이다.

20세기 전반 최고의 안목인 오세창(1864~1953) 아래서 전통적인 서화 감상법을 익혔으니 이는 서구와 구별되는 방법론이나 단순한 취미 영역의 달레당트는 결코 아니다. 그 분이 미술사 분야에서 이론 성과가 정치학에서의 업적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준 저술들이다.

내 학문의 산실인 박물관에서 한 분은 직장의 상사이며 스승으로 9년간을 모셨고, 또 한 분은 20년 가까이 여러 인연으로 자주 뵈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고교시절 '독서신문'에서 읽은 최순우(1916~1984) 선생의 신윤복 풍속화에 대한 미문(美文)과 동네 길모퉁이 현 책방에서 만난 1969년 창간한 '아세아'란 잡지가 불현듯 떠오른다. '아세아'를 들춰보다가 도판이 많이 실린 우리 옛 그림에 관한 글을 만났다. 다른 아닌 이동주 선생의 김홍도와 정선 등 조선시대 화가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은 1975년 '우리나라의 옛 그림'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20년 뒤 출판사를 달리해 보급판으로도 간행되었다.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500원짜리 베스트셀러' (500-won Bestseller).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ok and a smaller image of a person. Text includes '500원짜리 베스트셀러' and '이동주 한국회화사'.